

냉동 공조 업계의 전망

원 윤 희*

바야흐로 冷凍시-즌을 맞이하여 여러분께서는 어느때보다도 寸刻이 貴重하실텐데 이렇게 旺臨하여 주시니 그 誠意에 무어라 感謝의 말씀을 드리며 또 어떻게 報答하여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뒤늦게나마 우리나라도 오랜 原始的인 自給農耕社會를 벗어나 近代工業國家로 탈바꿈하므로서 食困아닌 豐饒가 꿈만이 아니라는 것이 實證되려는 마당에 不幸히도 中東戰을 挂期로한 資源나쇼 날리즘의 急激한 膨脹이 堪當키 어려운 石油波動을 惹起하고, 雪上加霜으로 世界的인 氣候異變은 食糧危機마저 造成하여 우리들에게 더한층의 試鍊을 要求하고 있습니다.

이 소용돌이 치는 世界經濟의 渦中에서 우리나라 經濟는 如何히 그 바란스를 되찾아 安定과 發展을 指向할것이며, 그 過程에서 우리들 冷凍空調分野는 果然 어떻게 變模하며 이에 對處함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것인가?

生覺하기에 따라 極度の 悲觀이 前進를 멈추게도 합니다. 참으로 500名의 從業員과 그 家族의 生計와 生活를 맡고, 또 莫重한 國家稅收의 一翼을 擔當하고 무엇인가 社會에 寄與함이 있어야하는 企業의 責任者로서 궁금하고도 답답함은 그지 없습니다.

이자리를 빌어 學界와 業界의 先輩 여러분에게 그에 對한 高見과 賢明한 知慧를 들고저하며 올바른 方向提示와 참된 가르침을 비는 뜻에서 저 나름의 所感의 一端을 被歷코저 하는 것입니다.

무릇 生産, 分配, 消費라는 經濟 범주속에서 冷凍空調의 役割은 果然 무엇이며 그의 比重이 어떠한가를 考察한다면 即 바꾸어 말하여 經濟的 量的 增加나 質的 向上에 미치는 冷凍空調의 位

置設定의 如何가 그 展望을 占치는 關鍵이 될것도 같습니다.

정말 아직도 우리나라 識者의 一部層이 主張하는바 冷凍空調가 不要不急의 奢侈的 特殊層의 嗜好品에 不過하다는 頑固함이 언제까지 通用되어야 하며, 이러한 原因은 어디에 있다 할 것입니까?

일찍이 우리 祖上들은 日月火水木金土의 可視的인 物質觀에 執着하여 눈에 보이지 않은 溫度의 絕對性에 等閑하였읍니다. 그러므로 모든 植物의 結實이 光 即 빛의 反應作用이라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였읍니다. 萬若에 農事季節에 있어서 平均氣溫이 攝氏 2°만 低下하드라도 收穫이 全無하다는 것을 想例하면, 自然 生態界에 있어서 조차 溫度가 얼마나 重要한 것인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人爲的으로 溫度를 調節할 수 있으므로 말미암은 人類文化의 發達의 貢獻은 他的 어떤것에도 讓步할 수 없으니 만큼 큼니다.

그러함에도 우리나라의 政策立案者의 이에 對한 認識의 缺如는 高率의 關稅와 70%라는 物品稅로서 反影되고 있습니다.

果然 우리는 그림의 떡이 아닌 우리나라의 現在의 國民所待水準에서 冷凍空調가 勤勞大衆의 生活道具化할 수는 없을 것인가?

果然 우리는 外國에서 技術을 導入하지 않으면 冷凍空調機를 製作할 수 있는 技術과 理論이 없는 것일까?

果然 冷凍空調는 經濟發展의 優先順位에서 後位랭킹으로 돌려야 마땅한가?

果然 今年은 에너지波動과 物價高로 冷凍空調 景氣는 後退할 것인가?

* 세기냉동 회장

70%의 高率物品稅가 果然 巨視的으로 볼때 우리나라 經濟發展에 이바지하는 安定한 措施인가?

果然 우리는 우리보다는 最少限 5倍以上의 高賃金者가 生産한 冷凍部품을 輸入하여 高價格을 維持해야만 할것인가?

果然 우리는 언제까지 一品料理式 少量 製造方式으로 高價格을 呼價하여 마땅할 것인가?

果然 우리는 冷凍空調機를 季節商品이라 하여 높은 마진에 安存함이 妥當한 것일까?

果然 우리는 未普及에서 오는 稀少價値를 利用하여 一部 冷凍空調의 技術奉仕對價를 높이 策定함이 穩當하고 良心의인 處事일 것인가?

果敢하게 國産化를 서둘러 全部品을 量産하고, 우리 實情에 맞는 大衆用의 冷凍空調機를 값싸게 大量 供給하는 韓國의 “첸리포드”는 있을 수 없을 것인가?

必要以上の 自動콘트롤을 附着한 高價의 外國製品을 흥내내는 것이 우리 實情과 如何히 調和되고 있으며 群雄割據의 市場體制에서 國際競爭의 眼目으로 自己體制를 整備하고 擴大再生産에 臨하는것을 中傷媒略으로 非傍하는 道義가 果然 自己發展에 얼마나 十될 것인가?

아무리 生計手段이라 하더라도 熱力學의 基本原則을 無視한채 中古廢品을 組立再生하여 市場을 攪亂하여 果然 어떠한 結果를 自招할것인가?

끝으로 에너지波動으로 인한 에너지節約과 冷凍空調의 含數 關係는 어떠한 것일까?

이렇게 設問만을 羅列 繼續하면 限이 없습니다 그러나 以上の 여러가지 問題에서 저는 甚히 逆說의인 見解를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韓國을 包含한 東洋이 西歐에 比하여 自然科學이 떨어지고 人文科學이 앞서있는 樣 生覺합니다만 오히려 그 反對라는 主張을 하고 싶습니다.

事實은 우리나라는 數理를 基礎로하는 自然科學의인 頭腦에 있어서는 西歐보다 優越하다는 것입니다.

美國의 우리僑胞 兒童이 數理面에서 壓倒的으로 優秀하여 班에서 반듯이 1, 2等の 席次를 자랑하는 것이 그 實例이기도 합니다. 그러함에도

自然科學을 바탕한 物質文明이 落後하였읍니다. 그 原因은 實로 社會科學이 뒤떨어지고, 人間의 價値認識과 社會 諸 制度의 그릇됨에서 오는 思考方式의 歪曲이 오히려 主客을 傳倒케한 現狀을 빚었다는 것입니다. 博士學位 獲得數에서도 社會科學系보다는 自然科學系의 數가 壓倒的으로 많은것도 그냥 보아 넘길 수 만은 없을 것입니다. 要컨대 政治社會의 指導管理階層은 創意, 努力보다는 그저 君臨하며 支配한다는 惡習이 뿌리깊이 박혔기 때문이 아니겠읍니까?

그例로서 우리 社會에서도 製作技術上의 試行錯誤보다는 經營管理面에서의 損實이 큰것이 事實입니다. 또한 不過 몇달동안에 熟達하는 工員의 技能發展 速度에 比하여 經營者의 自己啓發이 뒤진다는 것도 숨길 수 없는 事實입니다.

이웃 日本에서도 生産技術과 産業의 發展速度에 比하여 分配過程이나 政界의 舊態依然함이 許多한 社會問題로 부刻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東洋에 있어서 工員의 生産性보다는 오히려 管理者의 能率이 美國에 比하여 顯著하게 뒤진다는 것은 이미 判明된 事實입니다. 우리들 冷凍空調業界도 그 發展阻害要因은 技術에 從事하는 여러분의 탓이 아님이 分明합니다. 또 우리는 國內의 賦存資源이 없기 때문에 가난하다고 自嘆합니다만 이도 甚히 잘못입니다.

東西古今을 通하여 美國의 例外를 除外하고는 世界에 君臨한 어떤 나라도 自國의 資源에 依存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自國의 賦存資源이 없기에 그를 얻기 爲하여 大洋에 進出하고 大陸을 制覇하는 強國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韓國도 이제 아무런 資源이 없기에 衆知를 다하여 發展하는 筈에는 남지 않았읍니다. 以北의 資源이 그나마도 우리 手中에 없고 以南의 食糧도 이제는 不足합니다.

資源을 갖은 나라는 반듯이 資源이 없는 나라에 侵略當한 것은 歷史가 證明합니다.

石油를 政治武器化한 中東을 부러워할 것은 없읍니다. 早晚間 有限한 石油資源의 고갈에 그들은 戰戰兢兢하여 當황할 뿐입니다. 過去 日本이 우리를 侵攻한 것은 그들의 食糧을 얻기 爲함아

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資源에 依存할 것이 없
어짐으로서 轉禍爲福으로 發展않을 수 없습니다.
父母로부터 물려 받은 相續財産이 骨肉相爭을 誘
發하는 것이며 없다는 것을 自覺할때 人間은 누
구나 그것을 얻기 爲하여 奮發努力하는 것이 本
능이 아닐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 所謂 에너지危機로 因하여 冷凍空調分野
가 걱정되기도 합니다만 이는 一時的인 現象이고
反對로 에너지의 有効的이고도 合理的인 運營을
爲하여는 더욱 切實히 冷凍空調의 必要를 깨닫는
날이 올것을 確信합니다.

生産은 더욱 増産이 必要하고, 分配는 더욱 公
正이 要求되어, 消費는 더욱 節約을 追求하게 될
것입니다.

生産, 分配, 消費 어느것이나 浪費를 排擊하게
될것이기 때문에 이를 爲하여 반듯이 冷凍空調가
登場할 것입니다.

이미 増産을 爲하여는 人間은 既存知慧를 다하
고 있습니다만, 不幸히도 아직까지 溫度調節의
手段은 未洽합니다. 先進國에서조차 그동안 資源
의 入手가 容易하였던 까닭으로 經濟性을 理由로
冷凍空調의 利用이 極大化하지 못하였습니다.

農業의 増産에도, 工業의 能率向上과 生産性의
向上에도 冷凍機의 役割이 크게 期待됩니다.

가장 혼한 工業用 冷凍用水조차도 自然水의 호
름에 맡겨진 것은 옛날이야기가 되고 冷凍機를
利用한 循環再使用이 必要할 것입니다.

公正한 分配를 爲하여도 物量의 保管에는 반듯
이 溫度의 調節이 必要합니다. 高溫으로 因한 變
質의 損失이 冷凍機設置에서 얻는 經濟性을 곤개
닫게 할 것입니다.

消費의 節約을 爲하여 冷凍空調가 가져오는 利
益도 곧 再認識 할 것입니다. 資源이 비싸지고
高價일수록 더욱 빨리 冷凍空調의 有用性을 經驗
을 通하여 알게 될 것입니다. 한끼에 억지 春齋
으로 먹어치워야할 飲食을 冷蔵庫에 保管하므로
서 세끼, 내끼에 조개어 먹을 수 있는 節約도 알
들主婦가 아니라도 常識化할 것입니다.

美國에서 假髮이 많이 팔리는 것을 마치 奢侈

한 것으로 錯覺하기 쉬우나 머리化粧에 所要되는
時間節約이 主目的임을 안다면, 우리나라 主婦가
끼니마다 市場에 가야하는 번거로움과 時間의 損
失을 무엇으로 매울 수 있겠습니까?

에너지란 石油나 電氣만을 指稱하는것이 아닙
니다. 人間의 힘도 高貴한 에너지이며 人間의 生
命 그 自體가 곧 에너지입니다. 우리는 生存하기
爲하여 每日 最少限 2,500칼로리 以上の 에너지
의 新陳代謝를 必要로 합니다.

한마디로 物質的인 豐饒 即 잘산다는 것은 要
컨데 얼마나 많은 오리지널에너지를 攝取하고 또
生活을 爲하여 消費하느냐에 歸結됩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어떻게 浪費없이 擴大再生産하느냐
가 繁榮의 永續을 意味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所得이 늘수록 에너지消費는 여러面에서 幾何
級數的으로 늘어갑니다. 美國은 食糧하나만으로
도 오리지널 에너지로 換算하면 하루에 10,000카
로리 以上을 攝取한다는 計算이 된단합니다. 即
7倍의 飼料要求率을 要하는 部物性 肉類를 40%
以上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여름 무더위에 허덕이며 부질없이 浪
費하는 人間의 貴重한 에너지의 能率을 低下케하
는 人間에너지의 損失을 무엇으로 막아야 하겠습
니까? 우리는 잘살게 되면 그때 冷凍空調가 必
要하며 普及될 것이라고 生覺하게 아니라 잘살기
爲하여 그 手段으로서 必要한것임을 한때바때 깨
달을때 우리나라 經濟發展은 더욱 加速되리라 믿
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合心協力하고 相互信賴의 氣
風을 造作하여, 冷凍空調機의 完全 100% 國産을
達成하고 하루 빨리 國際時勢보다 싼 即 우리의
所得으로 누구나가 購得할 수 있는 冷凍機를 生
産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賦課된 使命이라고 보겠
읍니다.

物價高가 經濟의 破定이라고 부르겠습니다만
物價란 名目 金額이 問題가 아니고 人間의 勞動
賃金과의 比較에서 相對的으로 評價되어야하는
것입니다. 物價의 上昇率과 經濟成長率을 더한것
만큼 賃金이 引込된다면 物價騰貴가 問題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過度的인 物價와 賃金의 언바란

스에서 足과 非가 論難됩니다. 그러나 窮極的으로 人間의 知慧는 人間의 勞動이 모든 價値를 創出하는 源泉이며 主體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危機는 必然的으로 發展에의 轉機가 될 것입니다. 只今 國際間에도 分配의 不均衡으로 南北問題가 論議되고 있으며 國內에서도 貪富의 激差가 問題되고 있습니다. 要컨데 生産과 分配와 消費가 調和를 이루고, 얻은 富를 浪費하지 말고, 擴大再生産에 投入하여 모두 富의 創出에 努力한다면 人類는 祝福을 받을 것입니다.

以上 大端히 逆說的인 말씀만 드렸읍니다만 저이 慶元機械도 어떻게 하던지 우리나라에 冷凍空調의 뿌리를 定着시키고 成長시켜 불양으로 있는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좋은 물건을 값싸게 만이라는 目標로 國內에서나마 品質에서는 第一 좋고, 價格에서는 第一 싸고, 國內의 어디서나 언제라도 購入할 수 있도록 最善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爲하여 他物價의 昂騰에 便乘하지 않고 모든 原價高要因을 企業內部에서 吸收하도록 量産의 妙를 살리고, 購賣技術의 開發에 主力하고 生産工程을 라인화하고 專門分業化하며 自動機械의 設置에 勇斷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남들로부터 欲心밖에는 모르는 구두쇠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管理의 合理化에 神經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今年에는 甚至於技術提携先인 日本 HITACHI의 反潑을 받으면서까지도 比較的 物價가 安定된 美國으로부터 여러분이 돼지型 冷凍機라고 부르는 元祖인 Copland의 Compressor를 美國輸出入銀行의 外貨貸付를 얻어 한꺼번에 120萬弗어치를 特別 디스카운트로 사므로써 今年度의 製品販賣價格의 安定을 圖謀하였읍니다. 餘

他原材料도 싼것은 美國으로부터 導入할량으로 現在 重役 2名이 美國에 長期滯留中에 있습니다.

施設機械等은 時間的으로 조금 늦었읍니다만 完全: 自動콤배아체인을 비롯하여 지구보링等 高性能의 機械들이 오늘 現在 釜山에서 通關 또는 發注中에 있습니다.

萬若 來年 이맘때 여러분을 다시 모신다면 面貌가 一新한 先進外國工場에 못지않은 工場을 보실 수 있겠읍니다.

只今 여러분이 계시는 이 譯堂을 從業員의 教育의 場으로 活用하여 우리들의 資質向上에 精進하겠읍니다. 今年 下半期부터는 期必코 國際競爭에 挑戰하여 國産冷凍機와 空調機가 世界市場에 進出하도록 全力을 다하겠읍니다.

끝으로 의람되지만 本 慶元機械의 特徵을 말씀 드린다면 只今 여러분이 앉으신 椅子와 冊床을 보아 주십시오. 그리고 事務室이나 脫衣室의 카비넬, 工場建物, 作業工具, 工場레이아웃等を 觀察하신다면 다른데서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의 獨創力을 發見하시리라 믿읍니다. 종다 나쁘다는 價値判斷에 앞서서 애쓰며 해보려는 意志와 創意가 숨어 있음을 評價해 주신다면 多幸하겠읍니다.

우리는 갖이고 지나온 事實이 없기에 오직 앞으로 나아가므로써 배우고 익혀가야 한다는 教訓을 左右銘 삼을 것입니다.

그러나 本 慶元機械가 成長이 있다면 이는 오로지 여러분의 따뜻한 愛情의 所産이라 믿읍니다 앞으로 더욱 더한 보살핌이 있기를 懇切히 바라면서 또한 저희들도 여러분에게 報恩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恒常 잊지 않겠읍니다.

技術도 專門도 없는 제가 橫說豎說한 것은 容赦하여 주시기 바랍니다.